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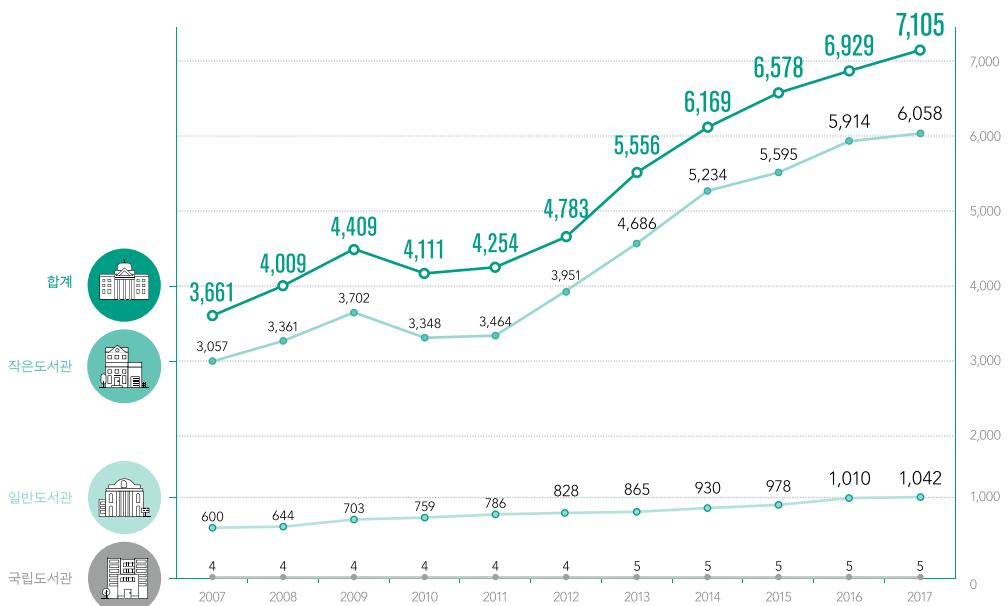
공공도서관,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?

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매년 공공건축을 통계자료집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>을 발간한다.

이 통계자료집은 공공건축물 현황, 인구로 보는 공공건축, 테마통계(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, 서비스 인구 대비 현황 등)로 구성되어 있으며,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7>에서는 테마통계 대상을 **공공도서관**으로 진행하였다.

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지자체별 분포,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간추려 소개한다.

Q 우리나라 공공도서관, 얼마나 많은가?



A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은 꾸준히(연평균 6.9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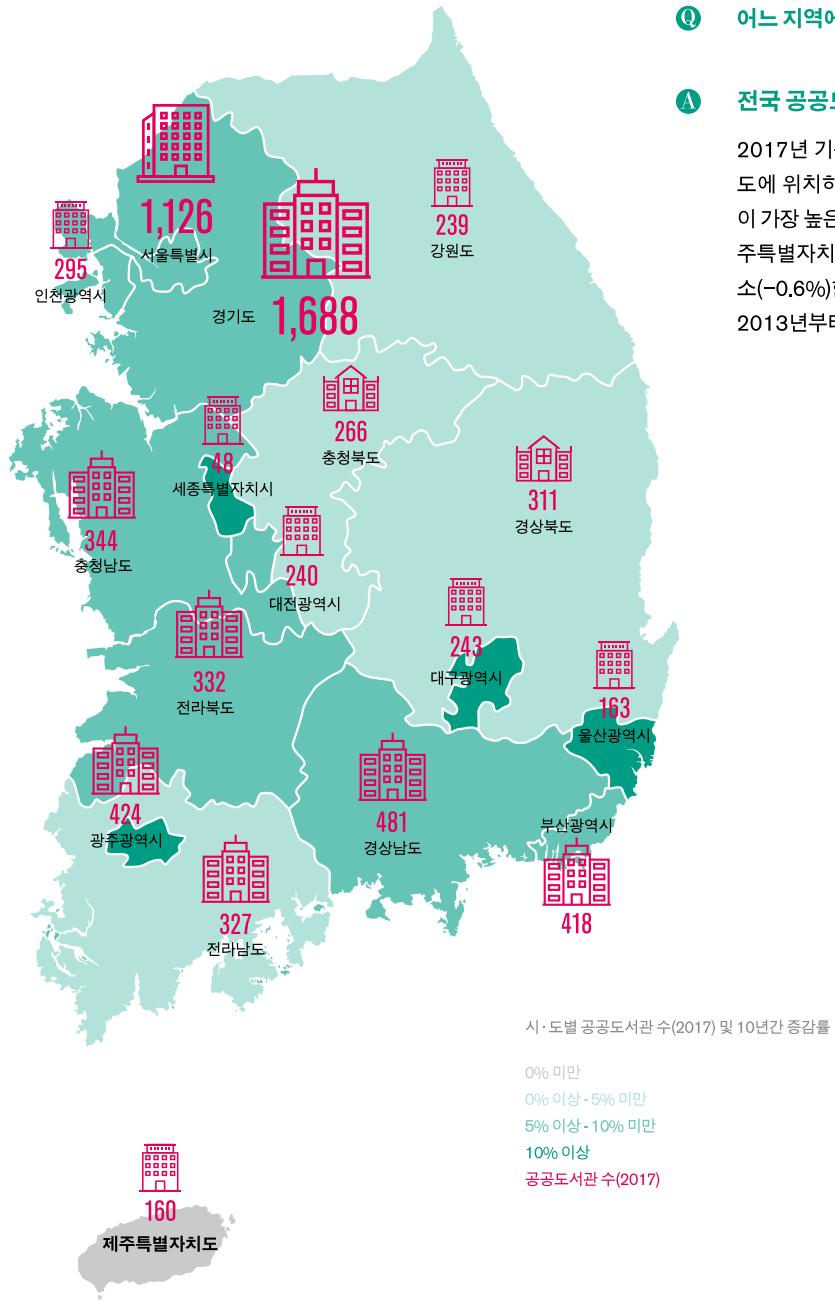
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(www.libsta.go.kr) 정보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국립도서관, 일반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개소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(연평균 6.9%)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유형별로는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이 증가(연평균 7.1%)하였고, 일반도서관(5.7%), 국립 도서관(2.3%) 순으로 나타났다. 다만 최근 들어 모든 유형에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통계자료실에서 살펴볼 공공도서관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에 따른 “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중 일반도서관(어린이도서관 포함), 작은도서관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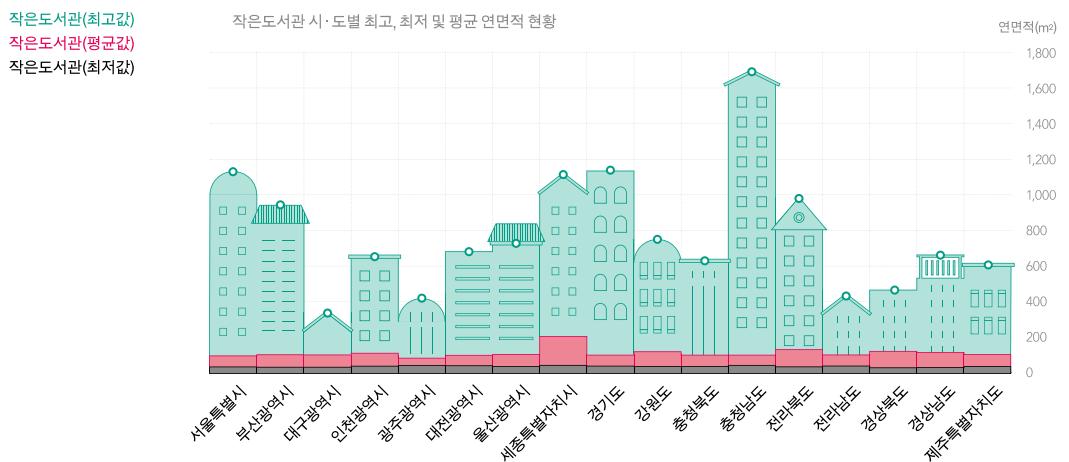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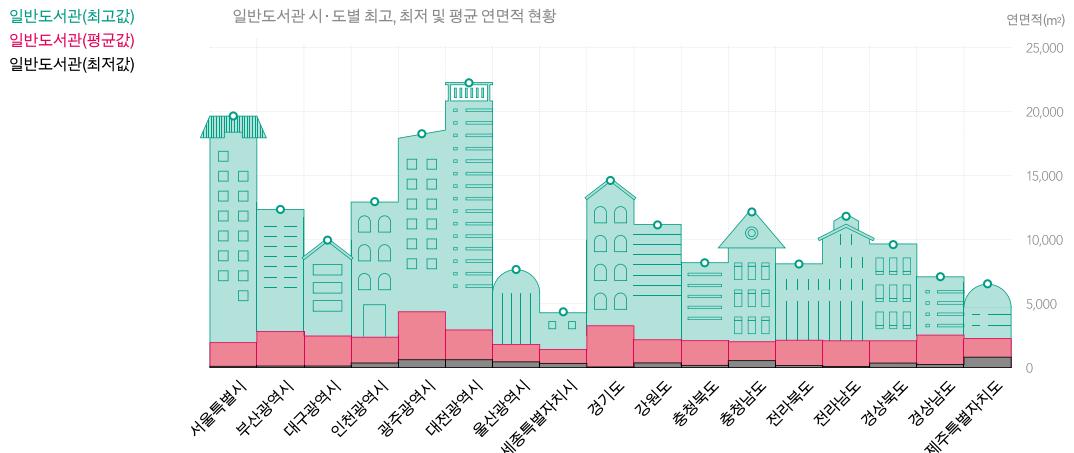
Q 어느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많은가?

A 전국 공공도서관의 24%가 경기도에 위치

2017년 기준 공공도서관 4개소 중 1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.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·도는 울산광역시(13%)였으며, 제주특별자치도는 17개 시·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(-0.6%)한 것으로 나타났다.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부터 집계한 수치이므로 제외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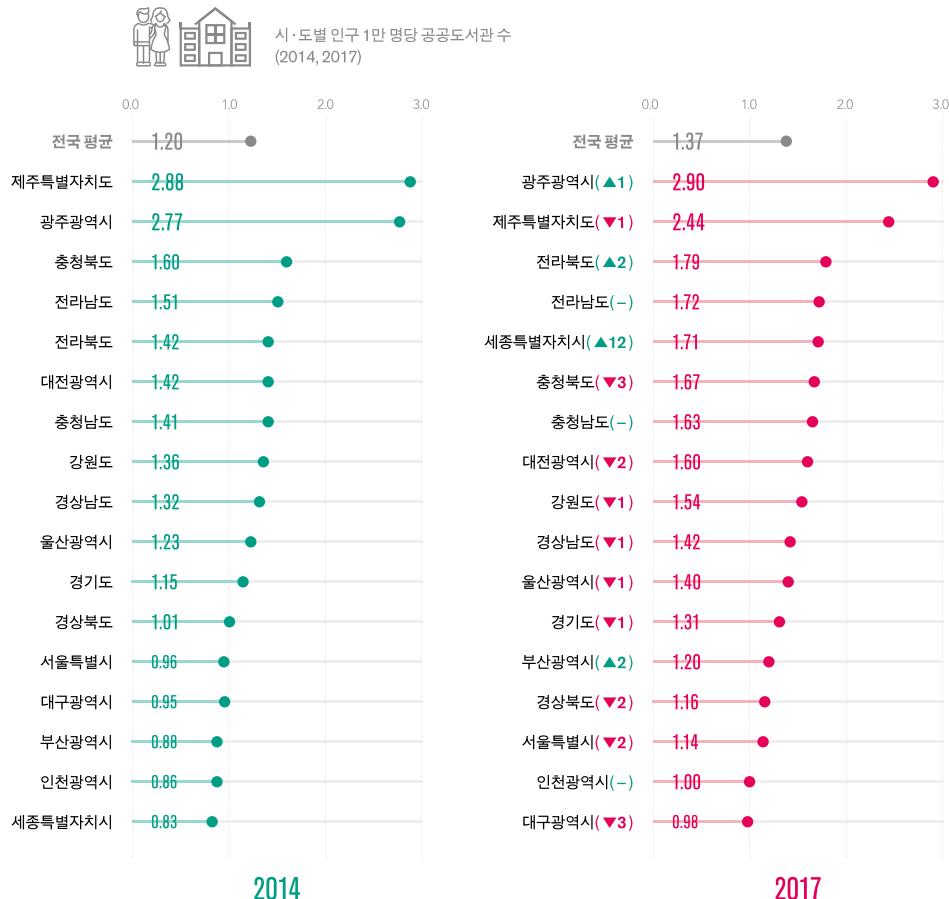
Q 어느 지역 공공도서관의 면적이 클까?



- A 광주는 일반도서관이 가장 크고 작은도서관은 가장 작으며, 세종은 일반도서관이 가장 작고 작은도서관은 가장 큼

전국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은 국립도서관(3만 2,048m²), 일반도서관(2,548m²), 작은도서관(108m²) 순으로 나타났다. 흥미로운 점은 광주광역시의 일반도서관 평균 연면적은 17개 시·도 중 가장 크며(4,462m²), 작은도서관은 가장 작았다(90m²). 이와 반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도서관 평균 연면적은 17개 시·도 중 가장 작으며(1,487m²), 작은도서관은 가장 컸다(203m²).

Q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거나 적은 지역은 어디일까?



A 2017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

인구 1만 명당 공공도서관은 2014년 1.20개소에서 2017년 1.37개소로 증가하였다. 2017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(2.90개소/1만 명)이며,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(0.98개소/1만 명)로 나타났다. 2014년보다 인구 1만 명당 공공도서관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, 세종특별자치시는 큰 폭(0.83개소 → 1.71개소)으로 증가하였다.